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투명화 시급

김필수의 차 이야기

매년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380여만대에 이른다.

신차 규모가 약 180만대라고 생각하면 두 배가 넘는 매머드 시장이다. 그러나 우리 시장은 규모에 비해 여전히 후진적이고 영세적인 문제점도 많다. 아직 불모지가 많고 거래 투명화가 가장 부족한 시장이 바로 중고차 시장이기 때문이다.

매년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되는 문제 중 중고차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고 거래금액이 크다보니 사회적 후유증도 크다. 허위 및 미끼매물이나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주행거리 조작 등 성능점검 문제, 품질보증 문제, 매매사원 관리 문제 등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간 정부도 각종 규제를 통해 노력했으나 아직도 문제점은 다분하다.

이러한 각종 문제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개선이다. 성능점검기록부는 객관적으로 거래되는 중고차를 평가하고 1개월 2000㎞를 의무 보증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법정 의무 품질보증 제도다.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기관을 4곳 지정해 운영되고 있으나 잘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구멍투성이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기관도 있는 실정이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같이 제대로 된 의무 보증을 해주는 기관을 중심으로 신뢰성을 높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을 강력하게 퇴출하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퇴출 의지도 보여주기 시작했고 특히 성능점검기록부의 자체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현재 국내 중고차 가격은 여러 곳에서 발행되는 책자를 참조로 하고 있고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주행거리나 연식, 색상, 사고유무, 침수 유무 등 수십 가지를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진단평가사 제도는 담당기관인 국토부의 유일한 인증 민간 자격증으로 앞서 언급한 다양한 중고차의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객관성을 인정받은 지 오래되었다.

여기에 이미 법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자동차 산정기관으로서의 자격도 가지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에 따른 성능점검기록부와 가격산정표의 통합으로 소비자는 더욱 객관적으로 자신의 매매차량에 대한 정확한 재산적 가치를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되었다.

아직은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앞서 언급한 법적 발행기관의 철저한 수시 감독과 문제 발생 시 퇴출은 기본이고 매매시장의 불투명한 관행 퇴출 등 소비자 중심의 선진 시장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여기에 최근 개인이 업체를 통하여 구입하는 사업자 거래에만 제출되었던 성능점검기록부가 개인 간의 거래인 당사자 거래에도 포함되는 관련법이 의원입법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투명성 제고가 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다. 다시 한번 성능점검기록부와 가격 산정표의 통합에 큰 기대를 걸면서 더욱 투명한 중고차 유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기보 임원진, 1日 지점장 활동나서 기술보증기금은 영업현장에서 업무간소화 방안을 찾고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전파하기 위해 1일 지점장 행사를 릴레이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보의 임원 및 본부장들이 직접 영업 현장에 나가서 보증상담과 현장출장을 통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기보 강낙규 전무이사(오른쪽)는 이날 인천 부평지점으로 출근하여 첫 번째 1일 지점장으로 나섰다. /기보

DB손보,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 위한 기부금 전달 DB손해보험은 지난 8일 서울 연희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 DB손보 임직원 및 프로미 농구단 김주성 선수, 환우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의료비 지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김주성 선수(오른쪽부터),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 DB손보 고객상품전략실 박성식 부사장이 기부금 전달식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B손보

펀드, 계열사에서 사면 안되나

기자 수첩

손 엄 지
〈파이낸스&마켓부〉

오는 2022년까지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이 현행 50%에서 25%로 낮아진다. 당장 올해부터 45%까지는 줄여야 한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연간 판매규모의 25%로 축소하되 시장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연 5%씩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규제는 금융사가 계열사 펀드 판매를 의도적으로 밀어주면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즉, 건전한 펀드 판매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이다.

일단 올해 1분기까지 증권사들은 45% 선을 잘 지켰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증권사의 계열사 신규 펀드판매 비중은 미래에셋대우가 44.53%로 가장 높았고, 비엔케이투자증권(44.06%), 대신증권(35.7%), 한국투자증권(31.51%) 순으로 나타났다.

사실 증권사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최대한 맞추는 분위기지만 뒤에서는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좋은 펀드에 대한 수요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 높아진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고객을 돌려보내거나 다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실제 연말이 되면 펀드 판매 비중을 맞추기 위해 증권사들이 의도적으로 계열사 펀드 판매를 중단하기도 한다. 내부판매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 선택권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A자산운용사 펀드 가입은 A증권사에서 하는 게 좋다는 인식을 가진 투자자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이 내부 판매 규제에 나선 의도는 긍정적이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시장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해와 융통성도 필요하다. 아무 대책없이 '25%룰'을 몰아부치면 시장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날 수도 있다.

/sonumji301@metroseoul.co.kr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상반기 캠페인 접수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 포털서

아모레퍼시픽은 방문판매원 '아모레 카운셀러'와 전개하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AMOREPACIFIC makeup your Life)'의 2018년 상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참가 접수는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 포털 사이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심적 고통을 겪는 여성 암 환자들에게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뷰티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2018년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의 상반기 캠페인은 서울 및 전국 주요 지역 총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전개된다. 이 캠페인은 방문판매 경로의 아모레 카운셀러 및 아모레퍼시픽 교육강사가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여성 암 환자들을 위한 '진정한 미의 전도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환자들에게는 메이크업 제품과 스킨케어 제품,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브로셔가 담긴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키트'가 제공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인사

◆**한국전기연구원** △전기추진연구본부장 김석주 △창의원천연구본부장 이건웅 △대전력평가본부장 김민규 △전기기기평가본부장 박승재 △기획조정부장 진병문 △경영지원부장 한영조 △기술사업화부장 최동철 △감사부장 정태용

부음

▲ 김순복씨 별세, 홍우표(CJB청주방송 기자)씨 장모상 = 9일 오전 9시 40분, 청주병원 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 043-254-124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 고 문 의	02)721-9851,9826
독 자 센 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395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047호

'청년 공감 일자리 채용博' 10일 개최

중기일자리委-충북도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는 충청북도와 함께 '2018 청년 공감 리자일자리(RESILE) FEST!' 채용박람회를 오는 10일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운을 회복하다'는 의미의 'RESILE'는 일자리를 거꾸로 한 동음어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뜻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충북지역내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에게 맞춤 취업 정보를 제공, 구인·구직난과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용박람회에는 우진플라임, 자화전자 등 충북지역 내 60개 이상의 우수기업이 참여해 지역 인재를 찾는다.

또 각 업종별 대표기관격인 의료기기, 전자, 기계, 프라스틱, 가구, 골재채취업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6곳 도조합원사의 인재채용을 위해 공동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각 업종별 특징,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 구직자들에게 홍보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채용 이외에도 ▲직무카드를 통한 취업 희망분야 직무분석 컨설팅 ▲면접 시 자신감 있는 스피치를 위한 보이스 컨설팅 ▲개인별 맞춤형 컬러 이미지 컨설팅 등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김승호 기자 bada@

맥도날드, 사회적 책임 강화 캠페인

항생제 닭고기 제한·친환경 포장재 사용

맥도날드는 글로벌 사회적 책임 캠페인인 '스케일 포 굿(Scale for Good)'의 국내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스케일 포 굿 캠페인은 맥도날드가 책임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 환경적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자 시작한 글로벌 캠페인이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원재료 공급, 환경 친화적 패키징, 청년 고용,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외식업계 최초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과학적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도 있다.

그 일환으로 한국맥도날드 역시 올해 1월부터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생제로 사육한 닭고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업계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이다. 현재 모든 치킨 메뉴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표한 '주요항생제리스트(HPCIA)'에 포함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닭고기만을 공급 받아 사용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맥도날드에서 사용하는 커피 원두를 '열대우림동맹(RFA)' 인증을 획득한 원두만을 공급 받아 사용할 예정이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